



"말씀과 성찬의 시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순 제3주일

2025년 3월 23일 / 제682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 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문성익 제2독서 안희재 / 입당 115 봉헌 513, 215 성체 156, 159 파견 490

Narrator Andy Lee 1st Reader Steve Kim 2nd Reader Emiliana Lee

입당 송 |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 탈출 3,1-8ㄱ.13-15

화답 송 | 시편 103(102),1-2.3-4.6-7.8과 11(◎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기록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

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0,1-6.10-12

복음환호송 | 마태 4,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음 | 루카 13,1-9

영성체송 |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3월 23일	주일학교 YES	Fr. Philip
3월 30일	주일학교 YES	Fr. Gus
4월 6일	주일학교 NO	Fr. Augustine
4월 13일	주일학교 YES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손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임 알비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주임신부님은 몇 년 전 선종하신 항인국 마태오 몬시놀입니다. 몬시놀님은 저의 사제 생활과 본당 사목의 롤모델입니다. 사목 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몬시놀께선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을 찾곤 했습니다. 몬시놀께선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식사 시간 중에 본당 사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몬시놀께선 늘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조언해 주셨는데 이는 칭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도 않으시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수정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처럼 몬시놀께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된 일에는 침묵하시며 제가 깨닫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다른 한 분은 고등학교 시절 주임신부님이셨고 신학교에선 영적 지도자셨던 김창훈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성적 모토는 ‘네 꼴대로 살아라.’입니다. 젊은 사제가 아버지뻘 되시는 신부님과 지내며,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잘못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신부님은 ‘네 생김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야단치시기보다 제가 잘못을 깨닫고 올바로 사제 생활을 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부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다려 주신 신부님들께 돌봄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몇 년 동안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주인은 자르고자 합니다. 어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포도 재배인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 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

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 잘라 버리십시오.”(루카 13,8-9) 강론을 준비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으신 어른들이 계셨음을 또 깨닫습니다. 그 포도 재배인들이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만 포도 재배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도 재배인의 말을 믿고 또 한 번 기다려 주신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잘못에도 야단치시기보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실 그분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 시기를 뜻깊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압구정1동성당 주임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For families in crisis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broken families might discover the cure for their wounds through forgiveness, rediscovering each other's gifts, even in their differences.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1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삼위일체 하느님

글/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천주교 신자라면 누구나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바치는 성호경의 내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 그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시다만(특히 식사 전에)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할 때도 많아서 그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 자체가 하나의 기도문이라는 것도 잊은 채 손은 이미 이마를 거쳐 가슴을 지나는 가운데 순식간에 외워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세례를 시작으로 모든 성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최근 교황청 신앙 교리부에서는 성사 집행에 규정된 ‘동작과 말’에 대한 설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전례문을 집전 사제가 임의로 바꾸어 “창조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는 식처럼 한다면 그 세례는 무효이며, 만약 그런 세례를 받은 이가 견진을 받는 경우 심지어 사제품을 받아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미국에서 실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신 하느님이심이 표현되어야 하며, “이름들”이 아닌 “이름”으로 한 분 하느님께서만 계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3항)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계시의 내용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인만큼 삼위일체

신비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들에는 ‘신앙 진리들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신비는 모든 신앙 진리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며, 다른 신비들을 비추는 빛(가톨릭 교회 교리서, 234항)으로 어떤 것들이 신앙 진리인지를 밝혀주는 기준이 되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어렵다, 인간은 본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저 믿어야 한다. 삼위일체는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하느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들”(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이기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저 믿어야 한다고 하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 신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막아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조 업적과 구약의 계시 안에 그 자취를 남겨 두시고,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파견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신(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항) 이 신비를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들을 마주하며 정말로 내가 무엇을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매일 무슨 기도를 바치며 살고 있는가를 의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짧은 지면에 삼위일체 신비를 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며 자칫 쉽게 표현하려다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에 제게도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교리 지식에 대한 우리의 ‘문해력’을 높여보자는 것이 목적이니 교회가 삼위일체 신비와 관한 신앙 교리를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 신학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우리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작업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부동산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하나비 스시 SUSHI HANABI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 사순시기 주요 전례 일정

- 4월 2일(수): 판공성사(한국어),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 4월 9일(수): 판공성사(영어),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 4월 13일(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전 9시
- 4월 17일(목): 주님 만찬 성 목요일(합동미사), 오후 8시
- 4월 18일(금):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오후 8시
- 4월 19일(토):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합동미사), 오후 8시

■ 부활 판공성사

- 일시: 4월 2일(수):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한국어)
4월 9일(수): 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 (한국어, 영어)
- 장소: 소성당 고해소
- 사순시기에 보시는 고해성사는 모두 판공성사에 해당됩니다.
- 성사를 보신 분들은 성사표를 제출해 주세요.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안내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영어), 오후 8시(한국어)
-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장소: 대성당

■ 십자가의 길 봉사 일정

3월 28일	마태 6, 7반
4월 4일	루카 1, 2반
4월 11일	루카 3, 4·5·6반
4월 18일	루카 7, 8반

■ 사랑의 모후 꾸리아 아치에스

- 모든 레지오 단원이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아치에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3월 23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시 30분
- 장소: 소성당
- 대상: 모든 행동 단원 및 협조단원
- 준비물: 레지오 기도문, 묵주

■ 성모회 공동구매 사전 접수

- 품목: 도토리 국수(\$30/박스), 오렌지꿀(\$75/갤런)
- 접수 마감: 3월 24일(월요일)
- 물품 전달: 4월 6일 교중미사 전, 후
- 판매 이익금은 성전 발전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문의: 성모회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 Rice Bowl(사순저금통)이 성당 로비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마음으로 온가족이 함께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 TVCS 사순절 2025 - Oasis of Hope 로컬 노숙자 지원 및 모금

- 스톡턴의 세인트 메리 커뮤니티 서비스와 리버모어 및 플레전턴의 지역 노숙자 이웃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일시: 3월 23일(주일) - 4월 11일(금)
- 요청 물품: 남성 여성 속옷, 기저귀, 물티슈, 등 필수품, 포장된 간편식.
- 기부 방법: 물품은 성당 로비에 준비된 Table에 전달 또는 필수품/패스트 푸드 구입용 Gift Card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QR code를 이용하세요.



■ 성경공부반 모집

- 북가주 가톨릭성서모임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신자분들은 안내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과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및 영어권을 위한 성경공부 과목도 동일함
- 시작일: 그룹이 형성되는대로 가능함
- 문의: 임무영 알렉산드라(408-386-0656)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588.15	\$287	\$1600	\$110	\$120	\$3705.15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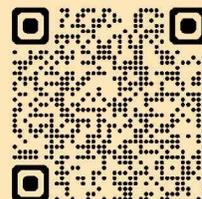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3), 김지수(1-3), 지영민(3,4), 황종영(1-3)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3), 김지수(1-3), 황종영(1-3)
- Bishop's Appeal 김성치(3), 김지수(1-3), 황종영(1-3)
- 감사봉헌금 조현대, 최진욱

사순시기 "신앙의 신비여!" 응답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